

러시아 사회주의와 정치체제를 통하여 형성된 정치, 경제관 분석 및 이해

조혜선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연구 대학교
정보 기술, 기계 및 광학대 철학과 박사과정)

서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 학문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가을 학회 주제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각 국민에게 심겨진 정치관과 사회주의를 통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를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유익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의 요지를 말한다면 사회주의 체제를 거친 시민들의 정치 경제 가치관의 특색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북한이 같은 체제를 실행했다는 동일점을 고려하여, 러시아가 공산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형성된 경제관이나 정치관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서유럽의 사회운동이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노동자와 농민들, 평민들의 봉기로부터 시작되어 궁극적으로는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절대국가로부터 공화정과 인본주의를 수립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회개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러시아에는 자타가 인정하듯이 강력한 투쟁으로 독재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1)

러시아의 사회주의 운동은 서유럽과 달리 개혁을 주도한 지도층이 노동자나 농민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귀족출신의 지식인들과 군인계급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들의 개혁은 왕정에 의하여 번번히 좌절되었고 탄압을 받으며 그 불씨를 키워왔다. 결국 그들은 1917년 10월 혁명 때 불같이 일어나서 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국민의 90% 이상의 오랜 봉건주의 농노제의 체제에서 생활했고, 노동자 중심의 평등한 정치는 주창했지만, 실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사회현상으로 러시아만의 독특한 새로운 사회체제가 형성이 된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관리는 중앙체제 중심의 명령체계가 형성이 되었고, 독재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는 역할을 했으며, 중앙체제 중심의 정치 경제의 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산업의 발전과 예술과 문화등 자국발전을 이루어 왔다,

유럽의 사회복지, 특히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인용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용어가 잘 표현해 주듯이 인간생존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준” 사회 복지제도가 가장 잘 실현된 나라가 러시아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현재에는

사회주의 모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전의 복지혜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 러시아 왕정은 러시아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대의원으로 출석하도록 권하였으나 고위 관리들은 러시아 농민들의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사실상 농민들은 정치적 자유나, 의회주의 사상에는 무관심하고 단지 토지 분배의 정책을 지지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에게 광대한 토지를 분배하여 타지로 이주시키는 정책이 효과가 있어서 토지는 받았지만, 러시아 남자들은 미국식 “개인 농장주가 되지는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역사 비평가들의 평가이다.(2)

러시아 사회주의 복지 제도는 중앙 집권 측의 결정에 의하여, 주택, 교육, 의료, 직업까지 모두 다 주어진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 속에서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백성들은 당에서 정해주는 규범만 준수하면 된다, 즉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개인은 전체 체제에 속한 한 부분만 담당하면 되는데, 규범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로 고민하거나 책임을 지고 희생할 필요가 없다.

본론

1장. 러시아 사회주의 태동에 바탕이 되는 특성.

러시아에 에카제리나 여황제의 손주인 알렉산드르 1세가 등용되면서 점진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1801년에는 처음으로 자격 있는 자들이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도 했고, 유럽과 터키, 이란, 스웨덴, 핀란드 등과의 전쟁을 통하여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비록 가내수공업 수준이지만, 러시아는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수출 등으로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를 이룬 나라였고, 특히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승리하여 유럽의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할머니의 교육지침으로 유럽식 교육을 받은 알렉산드르는 “스페란스키”를 통하여 국가법령의 법적초안도 만들었는데, 그곳에는 권력분립제 도입으로 입법권은 국가 두마(선거로 선출된 위원회 (하원))로, 집행권은 장관들에게, 재판권은 상원에게 맡길 것 등을 제안했다.

스페란스키 법안 변혁 프로그램의 본질은 러시아에서 부르주아형 군주제를 창설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통치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국고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귀족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 두려워 새로운 법안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귀족들의 요구대로 스페란스키는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한편 여러 전쟁에 참여했던 귀족 장교들과, 유럽과의 교역으로 러시아 정치변화를 요구하던 지식인들에 의하여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 되었다.(3)

알렉산더 1 세 치세 마지막 해에 , 경찰과 관료주의의 자의성이 강화되었고, 검열이 격렬 해졌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언론의 재판에 관한보고가 금지되었다. 그러한 왕정 치세는 반

동 정책의 결과로 사람들과 정부 사이의 분열, 일부 지식인과 왕정 사이의 분열이 되었다.

러시아 근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독재 정치를 강화하려는 생각에 반대했다. 수많은 애국적인 전쟁에 참여하거나, 서유럽을 왕래하며 정치적 변화를 직접 보게 된 많은 장교들이 있었기에 러시아의 평화로운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희망이 없어지자, 왕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급진적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설립함으로써 러시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혁명적 이데올로기가 탄생했다. 실제로 그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상원 의원 광장에서 1825년 제까브리스트 반란(12월 혁명당)으로 나타났다.

제까부리스트(12월 혁명당)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주권, 개인의 해방, 시민의 자유에 관한 서구 자유주의의 사상을 가진 귀족출신의 젊은 군인들이다. 최초의 비밀스런 모임은 1816년에 나타났다. 법령을 채택한 후에 조국의 참되고 충실한 아들들의 모임으로 구원을 이루고자하는 연합이었으나, 획일화 된 전술과 당시의 러시아 사회가 그들이 궁극 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한 이유로 조기에 퇴출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18 년에 탄생 한 후, 두 번째 비밀 사회 - 번영의 동맹 -은 거의 공개적으로 존재했으며, 최초의 연합회들은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개혁을 달성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유럽 여러 국가에서 억압받는 대중의 불만이 증가하고 사회운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 가자, 러시아 에서도 왕정을 반대하는 개방적인 지지자들도 많아지고 연합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 1821년 1월, 왕정에 속한 원주민 사회위원회 총회에서 연합의 해산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1821년에 곧바로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출범했고, 1822 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가장 영향력 있는 북부지역 단체가 되었다. (2)

러시아의 진실 이라는 잡지문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실는 잡지였다. 그들의 혁명의 승리와 개혁의 실행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에 의해, 독재 체제의 전복과 10년 동안 잠정 정부 독재 정착을 계획했던 계속된 농노제와 계급 제도는 결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법이 선언되기 전 모든 시민의 평등, 공화주의 제도가 실현되었다. 이들의 노고로 농민들은 토지를 무료로 받았다. (모든 토지의 50 %는 농민 소유를 위한 것이었다). 단 이 땅은 판매 대상이 아니며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국가와 지주에게 속해있는 다른 절반은 제품의 "필요 생산" 을 위한 것으로 남겨두었다.

입법부는 국회로, 행정부는 5인의 국가, 두마에 의해 행사되었다. 헌법 준수에 대한 통제는 최고 평의회에 주어졌으며 평생 선출되었다. 부분적이지만 스페란스키가 처음 만든 법안이 실행된 것이다.

2장: 왕정의 독재에 이어 일인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1917년 9월 5일 볼세비키는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에서(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슬로건으로 다시 등장하여, 혁명의 방법을 12명중 10명의 동의로" 무장반란" 을 결정 한다 10월 25 일 볼세비키가 승리한다, 경제적 문제들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노동자와 농민은 국가에 생산수단을 집중시키고, 중앙에서 행정적으로 생산을 할당하는 토대를 둔 경제관계를 형성한다,

1917년 11월부터 레닌은 공장에 대한 노동자 통제, 공장들의 몰수, 은행의 국유화후 최고 경제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포고했다. 모든 생필품은 중앙으로 집결 전달받고, 중앙에서 배급을 실시한다, 잉여 품을 남긴 자에게는 10년형의 엄벌에 처했고, 5명 이상의 일꾼이 있는 산업체는 모두 국유화 한다 등등...(3)

러시아 현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15개 연합국 각각의 나라는 나라별로

특산품을 전문적으로 만들게 하였다고 한다, 곡물만 생산하는 나라, 목재만 생산하는 나라, 철강만 생산하는 나라 등, 그리고 모든 것을 모스크바로 옮겨와서 각 나라로 생필품과 필수품을 배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자, 15개국 모두가 한가지의 전문 품에 의존해야 했으므로 모두 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3장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1) 1905년 런던에서 모인 혁명당 회의 중 레닌이 ” 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왕의 목을 내리치자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가” 라고 질문을 던진 이후에 레닌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고, 그렇게 급진적인 개혁에 동의하는 수가 많음으로 볼셰비키 당이 되고, 서유럽처럼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 레닌의 의견에 반대하는 수는 적음으로 멘셰비키 당으로 나뉘었다.

2) 혁명당원들은 그 당시 지주들에게 예속되어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자들과 지주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파멸시키는 악의 뿌리임으로 궤멸시켜야 새로운 세계를 열수 있다는 의식교육으로 지주들과 공장주등 부 층에 악감정을 철저하게 심어주었다.

3) 혁명당들과 합류한 행동대원들은 그 대상이 주로 공장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가난한 학생, 전쟁에 시달린 젊은 군인 등, 대체로 연령이 어리고 순수하며, 자본주의자들의 횡포를 듣기만 해도 분노하고, 당시 러시아귀족들의 생활이나 지주들의 생활에 비하여 너무나도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 평민들이라 그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해 피가 끓는 젊은 영혼들이었다.(4)

러시아 혁명의 급격한 성공에 대해서는 레닌 자신도 스스로 놀랐다고 한다.

본연구자가 아는 러시아 민족에게는 중요한 민족적 기질이 하나있다, 자국에 대해 평가하는 많은 러시아 학자들의 의견도 동일한데, 러시아 민족의 성품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순종적이지만, 12월 혁명당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왕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 매번 새롭게 일어나듯이, 꺾꽂 누르고 참다가, 어느 때가 되면 불같은 기운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럼으로 10월 공산혁명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만드는 성품이 있다는 것이다, 정교회 에서는 러시아 민족의 그러한 성품을 “정교회 적인 것과 이방 적(야만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러시아 철학자 베르자예는 니힐리즘적인 이방 적 성질이, 17세기에 종교분파주의로 등장했고, 19세기에 그들이 혁명당이 됐으며 니힐리스트와 공산당이 되었다라고 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내적인 성향(영성)은 슬라브족이 몇 천 년에 걸쳐 숲과 강을 따라 이동하고 정착하며, 자연신을 의지하며 자연 속에서 내적으로 형성된 부드러운 국민성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양되어 심겨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러시아적 성향이 그 하나이고, 동시에 오랜 세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고 추위와 자연의 재해와 타민족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며, 배우기도 하고 체득되기도 한 또 다른 야만적인 성질의 기운이 다른 인성의 한 부분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5)

러시아 고대민족의 생활을 살펴보면, 초대민족들이 오랫동안 스키타이 족과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용병으로 나가며 동거했던 기록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러시아 민족의 조상이 스키타이 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설령 조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상으로는 최소 천년 이상을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키타이족으로부터 익혀진 심성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6)

결론:

사회주의 정치와 사회복지를 통하여 형성된 러시아인들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7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만들어져 있는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왔고, 체제에 반항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을 직면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관청이나 경찰 혹은 행정직과 관계하게 되면 주춤거리고 조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경찰이 차를 세우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아직도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경찰 앞에 선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자신 앞에서 행정직 직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문을 닫고 나가도 아무 항의를 안 한다.

러시아는 전문적인 나라이다, 어느 분야가 됐든 자신이 맡은 분야만큼은 완벽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교수가 책을 손에 들고 강의 하는 법이 없다, 푸친 대통령이 민중과 주제토론을 할 경우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원고 한 장 보지않고 모든 질문에 답을 한다.

러시아 자체는 지금도 인본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체제중심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맡은바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확실하게 신뢰하고 맡기며, 어려서부터 개인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하기 때문에, 아기라도 손님으로 갈 경우에는 개인의자와 식탁이 준비된다.

한국문화는 종적인 유교문화의 틀이 있기 때문에, 어른, 직장상사, 직분 등으로 상대적인 인간관계를 갖지만, 러시아는 개인 인격을 평가할 때도, 직업과 나이 직분에 상관없이 상대를 동일하게 존중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어른이나 직장 상사가 들어오면 젊은이나 하급직원이 먼저 인사를 하지만, 러시아는 대통령이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예의이다.

지금은 대학도 거의 다 학비를 내야 되는 체제로 바뀌고, 병원도 무료시술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급한 환자들은 병원비를 내고 치료를 받지만, 기본적인 정기검진이나 어른들은 무료로 보호받고 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라에서 공급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어렵게 느끼고, 기본적인 삶만 주어진다면 더 이상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잘 갖추어진 전체 속에 소속된 자신의 분야와 영역만 담당해 왔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접목시키는 일을 잘 못한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고 북한이다, 한 민족이기는 하지만 이미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른 교육과 다른 체제의 삶을 살아왔다, 우리 어머니는 이북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 이미 이북에서는 소련 교사들로부터 러시아어를 배웠고, 어머니의 친정아버님이 소천 하시자, 아들인 동생이 세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장녀였던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셨다고 한다, 그 당시에 이미 남녀평등 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지난달 직장생활을 위해 러시아에 들어와 있는 북한 청년을 만났다, 북한의 정치, 경제 상황을 질문하자, “사회주의 복지 제도는 좋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정책이 시행되지 못해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집에서 기른 채소도 내다 팔고, 음식도 만들어서 팔아 생활을 이어가신다고 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비해 사회주의 체제가 오히려 철저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 구조로 자연스럽게 아주 조금씩 체제 변화를 겪고 있는 듯하다.

각 나라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는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 할 수 없다.

그 나라의 형편과 교육과 자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이다,

그리고 그 문화라는 옷 속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각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알아 가는 데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미주

1. Очерк теории социализма.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ю Москва 1989
463 ст 169.(사회주의 평론, 정치문학)

2. 러시아 역사 문명식 편역. 신아사 출판 911쪽 568-575 참조.

1. все мирн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я в XIX века. Москва Г.Б. Полях.
(19세기 러시아 전체역사)

2. Формирование сове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й система.
Тугую 2004ю В.В. Красников.(사회국가 정치 확립)

3. Бердяев Н.А. Размышления о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М.: Политика,
1992.(러시아 혁명에 대한 숙고, 베르자예프)

4. Демьянчук, И., Дьяков, В. и др. Антология русской души. Киев, 2012.
(고대 러시아 심성)